

# 左斗如司布教所를設置함

名稱 直指寺禪巖布教所  
位置 京城府峴底洞山

總 務	河 閔
布施部長	崔 林
持戒部長	崔 林
忍辱部長	梁 安
精進部長	梁 安
禪定部長	白 安
智慧部長	白 安

  

直 指 寺	永 丙 尙 奉 丙 慈 蓮	洲 奎 玄 蓮 寅 出 仁 行
-------	---------------	-----------------

## 龍岡温泉行

金 一 葉

平南龍岡은 나의故鄉이다. 그러나十餘歲에故鄉을떠나고  
나머지父母가別後 兄弟差차가온一家차이치아니한  
故鄉인처럼 그리하여이땅은天地에어디다가말할을운기며야  
조용하고 笑外지외로울하여도 故鄉말할지안이하엿  
다. 그러나나수이엿을記憶의餘生말하는 도라가신父母  
를哀慕하는情과한의 故鄉 동무 親戚의이말을이그리우고  
의복은山雲의뜻치서 風雨의뜻치고 霧나나말의로은어  
나의우편이 아말의은알대다. 인제나한은故鄉을  
차키가省察도하고 살아잇는의를이나고루~차키보  
이엿을말한山川이나바보아은면하고 寂寞의생각하는것  
이다.

모든것이預定되었던일이은은자 남편의休暇利用하아  
한남편의健康을조공이다. 同復期로운기해볼가하는것이  
斷續가되. 精神을활활가 三防을관가 이의활활가하는것  
이 남편의妻家故鄉을가보고싶다하는사과라 親戚의하  
가粧束하는것이冷한하의나溫泉浴을하야보라. 勸誘로  
因하여 故鄉을을外로만드기말게인것이다. 卒業에중지  
故鄉을을말하를뜻심지안은의만들 것불우드하맛은 父母

가도라가고 兄弟를나려버린寂寞한故鄉이라든 생각차나  
키버린지오래엇엇만은 엿친지別로조흔술도모르고 아무데  
나 남편과同行이라든은 한마음外에그지無心하야 차속의  
서잡만자고 잇는것이다. 그러나二週年前의 結婚式을  
行하기爲하야 남편을따라 남편의故鄉인大邱로向하든와  
感想은多小다를지모르지만은 남편의態度가그러나맛찬가지  
로愛人을對한것이多情하고 나의남편의對한感情도은前  
한것을실해「結婚은사랑의무렵」이라든것의우리의게는  
되말이다하고생각되든兩姓의 觀世音보살님의 갈사하는  
각의아름디 이치보리도들모든의如慈하되자이다하고 蓮  
하. 觀世音보살을~하고양유으로부르기도잇다.

봄은예한 아을해가 車窓을두려인공의회감하는것을겨우  
해키버리고차말해다가안느니 인제는나의故鄉가온半擲의  
드른은은알해開된것이다. 별건전후의수수나무 조나무  
가들질지모호느이리고 사의의하잇는 樹기~는의는  
림이나우들의바람의하늘하늘우우의고잇다. 멀리남향공리  
대잇는 아련하되든 平凡하고 나자만山雲은 高요하  
田園을늘드보호하고잇는것이다. 여기키가은해후~기을



體하고活潑하다 그 물의 흐름은 파도보다 낫다 그 물이 그 물  
은 물보다 家庭的으로社會的으로 女權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一般으로美觀의所有者인如數하다

그리고의溫泉에잇는 동안에는 外教內外분과外從妹들의  
情다움을만히맛었다 情에차이는말을가치온다 結實의完  
수한후스스를말나차다중다 社會사람들의社會的으로對하  
는것과드濕泥의差가잇는것을가치었다 맛부게되나드리고의  
濕泥모양의우르도삼수하지만 그 물은말마나사은해하는지  
남편의머기에서多少小效果는잇는모양이었다 이溫泉의는  
머가지 成分이적자잇는머病婦人病半身不隨 異마지스  
痲痛 皮膚病等에特別한效함이잇다한다 의사가못곳치는  
病院에서나드러는病者 屍身及치의머머은 病者외지나  
가는말이해수로잇다한다 이溫泉에十餘年이나開業하고잇는  
의사의말을드르면 이溫泉들은 病院의에比할수업는名藥의  
과한다 드濕사람들도果然名水의名水이라고讚歎한다 나  
이溫泉들의 汗제압도身身의化身인줄잇었다 나흔자만은汗제  
압도말년의蒸氣의마음을강화시키지만 모든다른사람은  
汗無心하거나 하나년의은해를감사하는사람들이다

各地方사람이다모하고 各階級사람이다모하고 더구나可  
憐한病者들의만회모하는이말에布教堂하나물위셔도道  
佛의고고 信心의뜻은慈誠잇는布教師가게서서 布教를전  
오면물상한養生을얻다나만하긴결하하느것이드렸  
다 溫泉浴을맛치하는 婦女들中에佛法을아드키을만사람의  
업나? 하고말피다가 생각하다가 몇사람에게몇마디傳하  
지않은 조그마한信心하나만가진無知한나의말이 얼마나效  
果가잇었는지  
나는溫泉의效果로다머이子女가생진다면 完全한布教師가  
되여이溫泉이나故鄉에문키佛法을傳하는이가되여지이다하고  
관세음보살님의말었다

「웃」

(四十五頁에서繼續)

지만습다가 고맙습니다 先生님의가치추신恩惠는 언저나  
언저나佛敎의生命에도움이될것입니다  
先生님의가신질이 다시오사지를말할말면저도 아쉬운마  
음의 한면도다시볼너보았읍니다 先生님世上을 비웃음이  
드리며慈愍이요 人生을嘲笑하십시 無常을알으치신줄알때  
들이여先生님의安住를발원합니다 先生님! 커언덕境界가잇  
더하십닛가 길의길의梅樂殿에安住하옵소서  
二九五八 舊六月日

### 조선어 불교 성전제이편 [四]

1. 의례를 부처님께서는 사위성의기원정사(旣園精舍)에 삼간제사다가 왕사상으로 올다가신사  
숙원정사(竹林精舍)에서 셋째우가(雨期)를제사치더니 그 때 기원인(禱祭人)의우가사나(都信持)는  
은 단행화그던제(圓證)를가느라고 왕사신제와신었다 그은은의 그모의은은 부사(尙尙)의아들이다  
을아두는예인(客人)의단제가 왕사신의인음양의처 연우을발포 그을은한처(廣女)를가양하  
의의고 노란제해들의가제이였다 색로든사람으로 제은을의을의은(總)을가느라고 나그내의을  
모욕(侮謔)후의소다들의말은보아의였다 그의나를정 부은가을의 한의의(總)을가느라고 나그내의을  
의는것과 의는은왕사신의에서 왕사신의다되는 善은고키佛우의을의스스모친은들의의의의였다  
상(非)은 佛은은모모의의의와 부처님조소가 그로말의 佛부들가느라고 나그내의을  
遊(遊)게인명화사 스승으로보 그의갈은음은곳의을의 佛가사나외제 佛을실하도록하섯다 기은(佛)  
의의였을지 그은노를을의우깃피하와 고지佛의사나외의 부처님안의의의의 佛가하 佛부(佛部)  
을만지하여 부사(佛部)의 부처님은그을제라하신했 그의화(佛)의사한것도 모다부처님의제가조고  
우가사나를 佛마와나드르 도(道)를제다스 善제(善者)의한가함의의였다

1. 의례의도 왕사신의(客人)의 心사함의였다 노로(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市)와와을(村)의 제사치고잇는은의 佛을을가느라고 나그내의 佛은을(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의 佛가사나가도佛들의은의 佛의의의의 고모심기(心)의(佛)의 부처님을 佛을을(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의 佛의을고 「부처님이지니 저는선배(先)의제를은수 佛(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의 佛의제모이우파함세 佛을의다하건 의소천(賢天)의(佛)의고하의다 부처(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하십니까」 「의(佛)의의 佛의을의제 佛의(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佛과도나 부처님은저를은하사다가 佛의(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  
신은을의지그을을하하 스스 佛의(佛)의(佛)를은을佛을가느라고 나그내의